대한침구학회지 제23권 제4호(2006년 8월)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원 저

加奇經八脈과 早期經脈의 비교연구

이동호

아름다운한의원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Eight Extra Meridians and the Primitive Meridians

Lee Dong-ho

A-Rum-Da-Un Korean Medical Clinic

Objectives :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Eight Extra Meridians And The Primitive Meridians Will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ridians And The Eight Extra Meridians, Which Ultimately Will Illuminate The Origins Of Meridians.

Methods : Books From The Pre-Han And Han Dynasty, As Well As Publications Concerning Meridians And The Eight Extra Meridians Were Utilized.

Results : Pathways Of The Eight Extra Meridians And The Primitive Meridians Travel Independently Without Connection With Other Meridians, And Have No Obvious Link With The Five Vital Organs And The Six Viscera. Additionally, The Terminology Of Both Meridians Is Similar, And Travel From Bottom To Top.

Conclusion : The Eight Extra Meridians Have Several Similarities With The Primitive Meridians. Therefore, The Eight Extra Meridians May Be An Important Area To Investigate In The Future.

Key words : Oriental Medicine, Meridian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이 논문은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접수 : 2006년 7월 7일 · 수정 : 2006년 7월 15일 · 채택 : 2006년 7월 15일
· 교신저자 : 이동호,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7 신동아쇼핑센터 2층 아름다운한의원
Tel. 02-749-0071 E-mail : goodhandoc@hanmail.net

Ⅰ. 서 론

經絡은 韓醫學에서 매우 중요한 체계이다. 經絡은 十二經脈, 奇經八脈, 十五絡脈, 十二經別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것이며, 이러한 체계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실제로 春秋戰國時代로부터 현재까지의 문헌을 조사해보면 經絡學說은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지금의 형태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질되기도 하고, 또 그 전해지는 것마저도 수량이 적어서 전래된 문헌을 토대로 정확한 經絡學說의 고대적 모습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奇經八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奇經八脈은 ≪黃帝內經≫에서 처음 그 모습을 나타내고, ≪難經≫에서 초보적이긴 하지만 계통적으로 설명한 이래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끝에 현대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黃帝內經≫에서 기술된 모습이 자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최고의 기록 중의 하나인 ≪馬王堆帛書≫에서도 奇經八脈에 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奇經八脈과 十二經脈의 성립에 관해서 일부의 학자들은 十二經脈이 奇經八脈보다 선행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추측에 불과할 뿐임은 확실하다. 오히려 奇經八脈을 살펴보면 ≪馬王堆帛書≫나 그 외의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기의 經脈모습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그 형태에 있어서는 현재 十二經脈의 모습보다는 원형을 더욱 잘 간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奇經八脈과 十二經脈의 관계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奇經八脈이 十二經脈의 機能을 보조하는 부수적인 經脈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奇經八脈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十二經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十二經脈과 구별되는 機能을 가지고 있고, 理論의 발전과정도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까지 알려진 각종 자료들에서 經脈의 조기모습을 고찰하고 早期經脈[12]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를 구성해볼 것이다. 그리고 奇經八脈의 형태와 生理理論을 早期經脈과 비교 검토하여 그 모습이 奇經八脈의 모습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Ⅱ. 본 론

1. 早期經脈의 형태와 특징

1) ≪足臂≫, ≪陰陽≫의 經絡形態

1972년 중국 長沙에서는 前漢시대의 古墓를 발굴하였다. 그 古墓 중에서 3호기에서는 상당량의 帛書, 竹簡, 木簡이 출토되었는데, 帛書 중 ≪足臂≫와 ≪陰陽≫이라고 하는 서적에는 經脈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기술되어 있다[1].

≪足臂≫와 ≪陰陽≫의 특징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足臂≫와 ≪陰陽≫은 모두 11脈으로 구성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足臂≫는 足脈 6개와 臂脈 5개로 구성되어 있다. ≪陰陽≫은 脈名上으로 足脈과 手脈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足脈으로 추정되는 것 6개와 手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2개, 足脈과 手脈의 확실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면서 脈의 循行部位에 따라 命名되어 있는 肩脈, 耳脈, 齒脈의 3가지의 脈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足臂≫에서는 經脈의 명칭을 현대의 '經絡'이나 '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脈을 뜻하는 이체자를 사용하였으나, ≪陰陽≫에서는 '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足臂≫와 ≪陰陽≫에는 臟腑와의 확실한 연계가 보이지 않고 미약한 관계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足臂≫에서는 2개의 脈이 臟腑와 관계되어 있는데, 手太陰脈이 心과 足少陰脈은 肝과 관계가 있다. ≪陰陽≫은 3개 脈이 臟腑와 관계되어 있는데, 臂鉅陰脈은 心, 太陰脈은 胃, 少陰脈은 腎과 관계가 있다.

넷째, ≪陰陽≫은 모든 脈이 전혀 分支를 내지 않으며, ≪足臂≫에서도 足泰陽脈과 足少陽脈 단지 2개의 脈만이 分支를 내고 있다. 이것은 12經脈 중에서 매 經脈이 모두 分枝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陰陽≫과 ≪足臂≫의 經脈이 독립적이고 간결한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足臂≫의 經脈은 모두 向心性 循行을

12) 여기서 早期經脈은 漢代나 漢代以前의 문헌에서 보이는 초기 經脈의 모습을 지칭한다.

하여 四肢에서 시작해서 胸腹部나 머리에서 끝난다. ≪陰陽≫은 十一脈 중 "肩脈"과 "太陰脈"에서 離心性의 循行이 보이지만 다른 經脈은 모두 向心性의 循行을 하고 있다.

2) ≪黃帝內經≫의 經絡形態

≪黃帝內經≫은 한 시대, 한 사람에 의해 저술된 책이 아니므로 그 안에는 정립된 한 가지의 學說 대신에 여러 가지 學說이 뒤섞여 존재한다. 經絡學說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이 보이는데, 즉 經絡學說 중에서 비교적 早期의 것으로 보이는 11經脈學說의 흔적과 그 보다는 後期의 것으로 판단되는 12經脈學說이 뒤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馬王堆帛書≫의 經脈理論 흔적을 볼 수 있으니, ≪靈樞·五音五味≫의 "臂陽明, 有入頄徧齒者, 名曰大迎. 下齒齲取之, 臂惡寒補之, 不惡寒瀉之. 足太陽有入頄徧齒者, 名曰角孫, 上齒齲取之, 在鼻與頄前. 方病之時, 其脈盛, 盛則瀉之, 虛則補之"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手脈에 대하여 '手' 대신에 '臂'를 사용한 것은 ≪足臂≫의 특징이므로 ≪黃帝內經≫에는 아직 이러한 早期經脈의 특징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靈樞·陰陽繫日月≫에서는 十干十二支 중에서 十二支를 足部의 左側과 右側의 6經脈에 배치하고, 十干은 손의 좌우 5개 經脈에 배속하고 있는데, 이 중 오직 手厥陰脈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 편의 經脈이 11經脈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靈樞·本輸≫에서는 手厥陰經脈을 제외한 각 11經脈마다 氣의 出溜注行入에 따라 해당되는 經穴을 배당하여 五輸穴로 대표되는 經脈의 흐름이 向心性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 중에서는 手少陰經을 中衝에서 나와서 손의 中指를 따라서 勞宮으로 가고 팔의 兩筋之間을 따라서 운행한다고 설명한 것은 바로 手厥陰經의 循行이니, 이 편에서 手厥陰經脈과 手少陰經脈이 혼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靈樞·本輸≫는 名稱上으로는 手厥陰經이 빠져있으나 실제로는 11經脈 체계 속에 手厥陰經이 이미 존재함으로써 11經脈 체제가 12經脈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靈樞·脈度≫에서 經脈의 個數는 명백한 12經脈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經脈의 循環面으로는 현대 12經脈의 체계와 같은 폐쇄순환구조가 아닌 手脈과 足脈의 陰脈과 陽脈 모두가 向心性 循行을 하고 있다.

≪靈樞·經脈≫에서는 十二經脈의 循行이 手太陰肺經부터 시작하여 足厥陰肝經에 도달하기까지 經脈의 主幹線과 主幹線에서 갈라져서 표리가 되는 經脈에 이어지는 分支로 다음 經脈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循行이 足厥陰肝經까지 도달하면 이 흐름이 다시 手太陰肺經과 연관되어 각각의 經脈이 고리와 같이 끊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靈樞·營氣≫에서는 ≪靈樞·經脈≫에서와 같이 手太陰肺經에서 足厥陰肝經으로 이어지는 循行은 같으나 足厥陰肝經의 후미에 督脈과 任脈, 그리고 다시 任脈에서 手太陰肺經으로 이어지는 十四經脈의 循行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十二經脈의 循環에 任督脈의 循環을 끼워 넣어서 14經脈의 循環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한층 진일보한 經絡循環說이라고 할 수 있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는 "陰之與陽也, 異名同類, 上下相會, 經絡之相貫, 如環無端"라고 하여 經脈의 循環이 서로 이어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靈樞·逆順肥瘦≫에서는 手三陰과 足三陽은 離心性의 循行을 手三陽과 足三陰은 向心性 循行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편에서의 經脈 체계는 ≪靈樞·經脈≫의 經脈 循環과 같이 12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閉鎖循環構造이다.

이상과 같이 ≪黃帝內經≫에서는 각 편마다 주장하는 經脈에 관한 설명이 달라 혼동스러운 양상을 보이지만 ≪靈樞·經脈≫에서 정리 통합되어 현대 經脈체계를 이루게 된다.

3) 西漢時代 고분의 木人

1993년 四川省의 錦陽市에 있는 西漢시대의 고분에서 흑색으로 거듭 漆해진 木質人形이 발굴되었다. 그 인형 위에는 紅色의 漆로 經脈의 循行經路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에 가장 早期의 침구인형이다. 李學勤 教授의 고증에 의하면 이 木人은 漢의 文帝와 景帝의 시기(B.C. 179-141)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馬王堆帛書≫의 매장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어서 經脈理論의 발전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2].

木人에는 모두 上下로 循行하는 19條의 主脈이 존재한다. 그 중에 木人의 신체 한가운데로 循行하는 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難經≫, ≪黃帝明堂經≫, ≪鍼灸甲乙經≫ 등의 서적에서 설명하고 있는

督脈의 循行路線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외에 木人에는 18개의 縱行 走行路線이 존재하는데, 이 18개는 좌우가 동일한 經脈을 모두 계산해 넣은 것으로 그 走行은 手三陰脈, 手三陽脈, 足三陽脈의 분포와 유사하다. 즉, 木人에는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10條의 經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陰陽≫이나 ≪足臂≫ 보다 그 수가 적으나 手太陰, 手厥陰, 手少陰의 手三陰經脈 路線이 모두 존재하고, 거기에 奇經八脈 중의 하나인 督脈의 路線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이므로 經絡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木人에 手三陰經脈의 路線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木人의 經脈 理論이 手厥陰 經脈의 路線은 존재하고 있으나 手厥陰 經脈의 脈名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陰陽≫이나 手厥陰經脈路線이 완전히 배제된 ≪足臂≫와는 다른 발전 단계를 가진 經脈理論이라는 증거가 된다. 또한 木人에는 足三陰經이 완전히 배제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馬繼興은 木人의 하지에 분포하고 있는 經脈을 살펴보면, 足陽明脈循行路線은 下肢 前面部의 正中線 주위에 분포하며, 足少陽脈循行路線은 주로 하지 外側面에 분포하고, 足太陽脈循行路線은 주로 하지 後面의 正中線 주위에 분포함으로써 足三陽經脈의 循行路線 만으로도 하지의 거의 모든 면적을 循行하는 결과가 되므로 足三陰經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였다[2].

다른 하나 木人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약간의 分支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木人에는 열 개의 脈이 있으나 分支가 존재하는 것은 手太陰脈의 循行路線에 2개, 手陽明脈의 循行路線에 1개, 手少陽脈의 循行路線에 1개, 足太陽脈의 循行路線에 1개로 모두 5개이다. 이는 ≪陰陽≫에서 모든 脈이 分支를 내지 않으며, ≪足臂≫에서는 '足太陽脈'과 '足少陽脈' 만이 分支를 내는 상황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經脈이 分支를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分支하는 經脈은 循行上의 分支가 아닌 木人 내의 다른 經脈으로 分支하는 것이어서 ≪足臂≫, ≪陰陽≫의 經脈들과 같이 각자가 분리되어있는 經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經脈들끼리 서로 이어져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므로 木人에 존재하는 分支의 의의는 ≪足臂≫, ≪陰陽≫의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木人에 존재하는 經脈路線의 方向性은 정확히 알 수 없다. 馬繼興은 현대 12經脈의 구조에 맞추어 木人의 經脈이 모두 離心性의 循行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2], 필자는 그 시기의 다른 서적 ≪足臂≫, ≪陰陽≫, ≪難經≫, ≪黃帝內經≫과 비교해 볼 때 마땅히 向心性의 循行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2經脈의 循行 순서에 비추어 보아서도 木人의 手太陰經脈路線이 手陽明經脈路線으로 分支하는 것과 足太陽經脈路線이 足少陽經脈路線으로 分支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向心性의 循行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더욱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4) ≪難經≫의 經脈理論

≪難經≫의 23難에서 29難까지는 주로 經脈에 관련된 내용으로 十二經脈, 奇經八脈, 十五絡脈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23難에서는 "手三陽之脈, 從手至頭, 長五尺, 五六合三丈. 手三陰之脈, 從手至胸中, 長三尺五寸, 三六一丈八尺, 五六三尺, 合二丈一尺. 足三陽之脈, 從足之頭, 長八尺, 六八四丈八尺. 足三陰之脈, 從足之胸, 長六尺五寸, 六六三丈六尺, 五六三尺, 合三丈九尺. 人兩足蹻脈, 從足至目, 長七尺五寸, 二七一丈四尺, 二五一尺, 合一丈五尺. 督脈, 任脈各長四尺五寸, 二四八尺, 二五一尺, 合九尺. 凡脈長一十六丈二尺. 此所謂十二經脈長短之數也"라고 하여 十二經脈의 流注와 脈長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十二經脈은 12개로 구성된 經脈體系이나 그 循行方向은 ≪靈樞·脈度≫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向心性이다.

經絡學的으로 ≪難經≫의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奇經八脈에 관한 순행, 생리, 병리를 명확히 밝혔다는데 있다. ≪難經≫에서는 全體 81難중 27難, 28難, 29難에서 주로 奇經八脈에 관하여 言及하였다. 이중 27難에서는 奇經八脈의 意義와 內容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고, 28難에서는 奇經八脈의 循環과 起止點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으며, 29難에서는 奇經八脈의 發病 證候를 다루고 있다. ≪難經≫에서는 '奇經八脈'이라는 用語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黃帝內經≫에서는 奇經八脈에 관한 認識은 있었으나 '奇經八脈'이라는 用語로 이를 표현하지는 못하였고, 奇經八脈 각각에 관하여 體系的으로 論述하지 못하였다. ≪難經≫에 와서야 비로소 奇經을 體系的으로 認識하여, 奇經八脈에는 督脈, 任脈, 衝脈, 帶脈, 陽蹻脈, 陰蹻脈, 陽維脈, 陰維脈의 8가지의 經脈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奇經八脈의 起源에 대하여 "聖人圖說溝渠,

通利水道, 以備不然. 天雨降下, 溝渠溢滿. 當此之時, 雱霈妄作, 聖人不能復圖也. 此絡脈滿溢, 諸經不能復拘也"라고 설명하였다.

각각의 經脈에 관하여 敍述된 內容을 살펴보면, ≪難經≫에서는 ≪黃帝內經≫과는 다르게 督脈, 任脈의 循行에 대하여 一貫性 없고 복잡한 循行 形態로써 言及하는 것을 지양하고 "督脈者, 起於下極之兪, 並於脊裏, 上至風府, 入屬於腦.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喉咽"라고 하여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衝脈의 循行에 대하여 살펴보면, ≪黃帝內經≫에서는 衝脈의 循行을 足少陰之經과 관련지어 敍述하고 다섯 가지의 循行形式을 제시하였으나, ≪難經≫에서는 "衝脈者, 起於氣衝, 並足陽明之經, 夾臍上行, 至胸中而散也"라고 간단하게 說明하였다.

≪難經≫에서는 또한 ≪黃帝內經≫에서 그 循行에 대하여 모호하거나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던 帶脈, 蹻脈, 維脈 등의 經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經脈의 循行에 대해서 "帶脈者, 起於季脇, 迴身一周. 陽蹻脈者, 起于跟中, 循外踝上行, 入風池. 陰蹻脈者, 亦起於跟中, 循內踝, 上行至咽喉, 交貫衝脈. 陽維, 陰維者, 維絡于身, 溢畜不能還流灌溉諸經者也. 故陽維起於諸陽會也, 陰維起於諸陰交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難經≫이 저술될 때를 즈음하여 奇經八脈 이론이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難經≫에서는 奇經八脈의 病候를 敍述하는데 있어서 奇經八脈의 病邪가 있을 경우에 이는 十二經脈의 流溢된 氣血이 奇經八脈에 넘쳐서 그러한 것으로 奇經八脈의 氣血은 다시 十二經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奇經八脈을 瀉함으로서 病을 治療할 수 있다고 하였다. 個個 經脈의 病候에 대하여 督脈, 任脈, 衝脈의 病候에 관련된 內容은 "衝之爲病, 逆氣而裡急. 督之爲病, 脊强而厥. 任之爲病, 其內苦結, 男子爲七疝, 女子爲瘕聚."라고 하여 ≪黃帝內經≫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維脈, 蹻脈에 대해서는 ≪難經·第二十九難≫에서는 "陽維維于陽, 陰維維于陰. 陰陽不能自相維, 則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陽維爲病, 苦寒熱, 陰維爲病, 苦心痛. 陰蹻爲病, 陽緩而陰急, 陽蹻爲病, 陰緩而陽急"라고 하였고, 帶脈에 대해서는 "帶之爲病, 腹滿, 腰溶溶, 若坐水中"이라 하여 독특한 疾病과 病機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維脈과 帶脈, 蹻脈의 生理, 病理에 관하여 言及한 내용은 ≪黃帝內經≫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독특한 것으로 戰國時代로부터 奇經八脈 學說의 發展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難經≫의 이러한 내용들은 後世 醫家들의 奇經八脈 理論을 硏究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3].

5) 早期經脈의 특징

첫째, 經脈의 명칭이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陰陽≫에서는 肩脈, 耳脈, 齒脈과 같이 순행부위와 관련이 있는 명칭이 사용된 經脈이 있고, 나머지 脈은 陰陽속성을 고려해 명명되었으나 손발의 표지가 있는 것은 臂鉅陰脈과 臂少陰脈 두 가지 뿐이다. ≪足臂≫에서는 각 經脈마다 손발의 표지는 있으나, 手脈이라는 용어 대신 '臂'가 사용되었다. ≪陰陽≫, ≪足臂≫, ≪脈書≫에서는 '經脈'이라는 용어 대신 '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靈樞·五音五味≫에서도 '手' 대신 '臂'가 사용되었다.

둘째, 早期經脈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經脈의 순행방향이 대부분 向心性이라고 하는 것이다. ≪足臂≫, ≪陰陽≫에서의 脈의 循行方向은 현대 經脈의 循行方向과 현저히 다르다. ≪足臂≫에서는 모든 脈이 向心性 循行을 하여 사지에서 시작해 胸腹部나 머리에서 끝난다. ≪脈書≫와 ≪陰陽≫에서는 9개 脈이 사지에서 胸腹部나 머리로 흘러서 向心性 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肩脈과 太陰脈 등 2개 脈은 각각 귀 뒤에서 손등으로 위에서 발목 안쪽으로 흘러서 離心性 순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難經≫의 경우는 23難에서 手足三陰三陽經脈의 길이와 순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向心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奇經八脈의 순행을 언급한 28難에서 보면 帶脈을 제외하곤 모두 向心性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靈樞·脈度≫를 살펴보면 經脈의 순환을 모두 向心性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경맥체계에서도 존재하는 十五絡脈, 十二經別, 十二經筋, 根結, 五輸穴 이론이 적혀있는 ≪靈樞·經脈≫, ≪靈樞·經別≫, ≪靈樞·經筋≫, ≪靈樞·根結≫, ≪靈樞·本輸≫편을 살펴봐도 모두 그 순행방향이 向心性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經脈의 주행을 살펴보면 6개 脈은 向心性, 6개 脈은 離心性으로 循行하고 있다. 즉 손의 세 陰脈은 가슴에서 손으로, 손의 세 陽脈은 손에서 머리로, 발의 세 陽脈은 머리에서 발로, 발의 세 陰脈은 발에서 가슴으로 흐르는 것이다.

셋째, ≪足臂≫, ≪陰陽≫, ≪脈書≫는 모두 11脈

체계로 기술되어 있다. 현대의 12經脈체계와 비교할 때 手厥陰心包의 脈이 빠져있는 형태이다. 四川省의 西漢時代 古墳에서 발견된 木人의 經脈은 督脈과 手三陰經, 手三陽經, 足三陽經으로 되어있는 10脈 체계이고, 督脈을 제외하고 12正經과 비교하면 9脈 체계라고 할 수도 있다. ≪靈樞·陰陽繫日月≫에는 十干十二支 중에서 十二支를 足部의 左側과 右側의 6經脈에 배치하고, 十干은 손의 좌우 5개 經脈에 배속하고 있는데, 이중 오직 手厥陰脈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陰陽繫日月』이 11經脈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靈樞·本輸≫에서는 手厥陰經脈을 제외한 각 11經脈마다 氣의 出溜注行入에 따라 해당되는 經穴을 배당하여 五輸穴로 대표되는 經脈의 흐름이 向心性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 중에서 手少陰經의 순행으로 설명한 것은 실제로는 手厥陰經의 循行이니, 手厥陰經脈과 手少陰經脈이 혼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靈樞·本輸≫는 名稱上으로는 手厥陰經이 빠져있으나 실제로는 11經脈 체계 속에 手厥陰經이 이미 존재함으로써 11經脈 체제가 12經脈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현대 經脈에서 12經脈은 모든 脈이 分枝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早期經脈을 살펴보면 經脈에 있어 分枝는 일반적이지 않다. ≪陰陽≫, ≪脈書≫에서는 모든 脈이 分支를 전혀 내지 않으며, ≪足臂≫에서는 '足太陽脈'과 '足少陽脈'이 각각 分支를 하나씩 낸다. 四川省에서 발굴된 木人에서는 약간의 分支가 존재한다. 木人에는 열 개의 脈이 있으나 分支가 존재하는 것은 5개이다. 이는 ≪陰陽≫이나 ≪足臂≫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經脈이 分支를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分支하는 經脈은 循行上 갈라지는 것이 아닌 木人 내의 다른 經脈으로 分支하는 것이어서 ≪足臂≫, ≪陰陽≫의 經脈들과 같이 각자가 분리되어있는 經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經脈들끼리 서로 이어져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므로 木人에 존재하는 分支의 의의는 ≪足臂≫, ≪陰陽≫의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즉 현대 經脈에서 한 經脈과 다른 經脈이 이어져서 하나의 거대한 폐쇄순환구조를 가지는 經脈체계로 발전하는 과도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足臂≫에서는 2개 脈이 臟腑와 연계되어 있는데, 手太陰脈은 心으로 가고, 足少陰脈은 "肝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陰陽≫에서는 3개 脈이 臟腑와 연계되어 있는데, 臂鉅陰脈은 "心으로 들어가고", 太陰脈은 "胃의 脈이며", 少陰脈은 "腎에 이어져 있다"고 하였다. 즉 각 經脈과 장부의 연관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현대經脈에서는 12經脈 모두가 각각 하나의 장부와 연결되어 있다.

2. 奇經八脈의 형태와 특징

1) 奇經八脈의 경혈

奇經八脈은 督脈, 任脈, 衝脈, 帶脈, 陽蹻脈, 陰蹻脈, 陽維脈, 陰維脈의 8가지로 이루어진 經脈의 집단이다. 奇經八脈은 각각 적게는 몇 개에서부터 많게는 28개에 이르기까지 그 經脈의 循行上 經穴이 존재한다. 그러나 任脈 24개, 督脈 28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六脈은 經穴이 十二經脈의 經穴과 중복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穴位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奇經八脈이 路線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經穴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奇經八脈의 機能이 十二經脈의 經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12經脈과 經穴을 공유함으로써도 그 機能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經穴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經脈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필자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奇經八脈을 비롯한 모든 經脈의 機能 그리고 그 機能에 수반하는 모든 病證은 직접적으로 그의 循行에서 말미암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募穴이나 背兪穴처럼 經脈의 循行路線 중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經脈의 機能과 관계된 예외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經脈의 機能이 발현되는 면을 살펴보면 經穴보다도 經脈의 循行에서 起因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足少陽膽經을 보면 이는 偏頭痛, 脇痛, 膽囊疾患에 응용할 수 있는 經脈인데, 이것은 足少陽膽經에 존재하는 經穴의 성격 때문이라기보다 足少陽膽經이 側頭部와 胸脇部를 지나서 肝膽에 이어지는 循行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奇經八脈의 경우에는 經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奇經八脈의 독자적인 흐름이 존재하므로 奇經八脈의 독자적인 機能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奇經八脈은 독자적인 經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2) 奇經八脈의 表裏

奇經八脈은 8가지로 '奇經八脈'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형태이지만 그 循行상으로 살펴보면 서로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써 循行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十二經脈의 경우에는 陽經과 陰經이 서로 表裏가 되어서 生理, 病理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奇經八脈에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 혹, 任脈과 督脈, 陽蹻脈과 陰蹻脈, 陽維脈과 陰維脈이 표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名稱上으로 그렇게 보일 뿐, 실제 循行上으로는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經脈이 표리관계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 手太陰肺經과 手陽明大腸經의 경우처럼 A라는 經脈의 氣가 B라는 經脈으로 絡하고, B라는 經脈의 氣도 또한 A라는 經脈으로 絡하여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奇經八脈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다운 의미의 표리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奇經八脈의 순행방향

현대의 經絡學에서 채용하고 있는 奇經八脈의 循行은 대부분 ≪難經≫의 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역대 醫家들이 채용한 奇經八脈의 循行 또한 ≪難經≫의 설이 위주가 되어 있다. ≪難經·第二十八難≫에서는 "其奇經八脈者, 旣不拘於十二經, 皆何起何繼也. 然, 督脈者, 起於下極之俞, 並於脊裏, 上至風府, 入屬於腦.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喉咽. 衝脈者, 起於氣衝, 並足陽明之經, 夾臍上行, 至胸中而散也. 帶脈者, 起於季脇, 迴身一周. 陽蹻脈者, 起于跟中, 循外踝上行, 入風池. 陰蹻脈者, 亦起於跟中, 循內踝, 上行至咽喉, 交貫衝脈. 陽維, 陰維者, 維絡于身, 溢畜不能還流灌溉諸經者也. 故陽維起於諸陽會也, 陰維起於諸陰交也"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 의하면 奇經八脈은 向心과 離心이 병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帶脈의 循行을 제외하고는 모두 向心性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靈樞·營氣≫에서는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傳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太陰出注手陽明, … 注足少陽, 下行至跗上, 復從跗注大指間, 合足厥陰, 上行至肝, 從肝上注肺, 上循喉嚨, 入頏顙之竅, 究於畜門. 其支別者, 上額, 循巔, 下項中, 循脊, 入骶,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 入缺盆, 下注肺中, 復出太陰, 此營氣之所行也, 逆順之常也"라고 하여 營氣가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手陽明大腸經을 거쳐서 十二經脈을 循行한 후에 足厥陰肝經에서 督脈을 循行한 후, 任脈의 路線을 따라서 다시 手太陰肺經으로 돌아가는 十四經의 循行을 설명하고 있다. 비록 이 문장에서는 督脈의 循行이 離心性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督脈의 循行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 ≪素問·骨空論≫에서는 向心性 循行으로 설명하고 있고, ≪黃帝內經≫의 대부분의 篇들에서도 向心性 循行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督脈의 主 循行方向은 向心性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靈樞·逆順肥瘦≫에서는 "夫衝脈者, 五藏六腑之海也, 五藏六腑皆稟焉. 其上者, 出于頏顙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入腘中, 伏行骭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並於少陰之經, 滲三陰, 其前者, 伏行出跗屬, 下循跗, 入大指間, 滲諸絡而溫肌肉. 故別絡結則跗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라고 하여 衝脈에 上方向과 下方向의 循行이 동시에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관하여 ≪奇經八脈流注方向探源≫에서는 衝脈이 奇經八脈 중 上下의 循行을 모두 가진 經脈이지만 그 主 循行線이 上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4]

4) 奇經八脈의 分枝

≪素問·骨空論≫에서는 督脈의 循行에 대하여 "督脈者, 起于少腹以下骨中央, 女子入繫廷孔, 其孔溺孔之端也, 其絡循陰器, 合篡間, 繞篡後, 別繞臀, 至少陰與巨陽中絡者, 合少陰, 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與太陽起于目內眥, 上額交巔上, 入絡腦, 還出別下項, 循肩髆內, 俠脊抵腰中, 入循膂絡腎. 其男子循莖下至篡, 與女子等. 其少腹直上者, 貫臍中央, 上貫心入喉, 上頤環脣, 上繫兩目之下中央."라고 설명하고, ≪靈樞·經脈≫에서는 "督脈之別, 名曰長强. 挾膂上項, 散頭上, 下當肩胛左右, 別走太陽, 入貫膂. 實則脊强, 虛則頭重, 高搖之挾脊之有過者, 取之所別也"라고 하여 督脈의 循行이외에 分支가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衝脈의 循行에 대해서는 ≪靈樞·逆順肥瘦論篇≫ "夫衝脈者, 五臟六腑之海也, 五臟六腑皆稟焉. 其上者, 出于頏顙, 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于氣街, 循陰股內廉, 入腘中, 伏行骭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並于少陰之經, 滲三陰, 其前者, 伏行出跗屬, 下循跗, 入大指間, 滲諸絡而溫肌肉. 故別絡結則跗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라고 하였다.

그 외에 ≪靈樞·動輸篇≫에서는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于腎下, 出于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膕中, 循脛骨內廉, 幷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其別者, 邪入踝, 出屬跗上, 入大指之間, 注諸絡, 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라고 하고 ≪靈樞·五音五味篇≫ "衝脈任脈, 皆起于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上行會于咽喉, 別而絡脣口"라 하여 衝脈도 또한 主 循行線 이외에 分支가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여섯 개의 經脈은 이러한 分支가 존재하지 않는다.

5) 奇經八脈과 장부관계

≪素問·骨空論≫에서는 督脈이 腎臟과 奇恒之腑 중의 腦에 絡屬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黃帝內經≫ 중 이곳 이외의 부분에서 奇經八脈과 臟腑의 연락관계를 시사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奇經八脈이 이처럼 臟腑와의 연관관계가 희박한 것은 각 奇經八脈들은 臟腑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機能을 수행하며 經脈 循行 자체가 經脈의 機能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任脈은 腹部 正中線을 循行하여 인체의 陰氣를 주관하며, 督脈은 背部의 正中線으로 循行하여 인체의 陽氣를 주관하는 것이다. 衝脈은 小腹에서 일어나서 인체의 위와 아래로 四通八達하는 經脈으로 全身의 氣血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帶脈은 인체의 腰部를 橫으로 循行하여 經脈을 約束하는 역할을 하며, 蹻脈과 維脈 또한 循行하면서 十二經脈과 연결되어 十二經脈의 氣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十二經脈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手太陰肺經이 循行하는 부위는 上肢의 內側이므로 上肢의 內側에 筋骨格系의 질환이 발생하면 手太陰肺經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手太陰肺經의 機能은 내부 臟腑인 肺經과의 연락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手太陰肺經의 是動病과 所生病을 ≪靈樞·經脈≫에서 "是動則病肺脹滿膨膨而喘欬, 缺盆中痛, 甚則交兩手而瞀, 此爲臂厥. 是主肺所生病者, 欬, 上氣, 喘喝, 煩心, 胸滿, 臑臂內前廉痛厥, 掌中熱. 氣盛有餘, 則肩背痛, 風寒, 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則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 爲此諸病, 盛則瀉之, 虛則補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라고 설명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十二經의 生理機能이 循行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呼吸器系統의 질환을 치료하는 機能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奇經八脈의 기능은 순행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고, 十二經脈의 기능은 소속장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Ⅲ. 고 찰

≪馬王堆帛書≫의 經脈은 ≪足臂≫의 足泰陽脈, 足少陽脈, 足陽明脈, 足少陰脈, 足泰陰脈, 足巻陰脈, 臂泰陰脈, 臂少陰脈, 臂泰陽脈, 臂少陽脈, 臂陽明脈 11개이고, ≪陰陽≫과 ≪脈書≫는 鉅陽脈, 少陽脈, 陽明脈, 太陰脈, 厥陰脈, 少陰脈, 臂鉅陰脈, 臂少陰脈, 肩脈, 耳脈, 齒脈 11개이다. 사천성에서 발굴된 木人은 손의 6가지, 다리의 3가지의 經脈과 督脈으로 보이는 經脈 1가지의 10脈 체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奇經八脈은 督脈, 任脈, 衝脈, 帶脈, 陽蹻脈, 陰蹻脈, 陽維脈, 陰維脈의 8개로써 두 가지 모두 十二經脈群 즉, 十二經脈, 十二經筋, 十二經皮, 十二經別 등의 12數 규율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馬王堆帛書≫의 11經脈과 奇經八脈의 脈名을 살펴보면 모두 十二經脈의 手太陰肺經,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등의 '經'이 아닌 '脈'을 의미하는 '脈'이나 脈을 뜻하는 이체자를 사용하여 표현이 되어있다.

≪馬王堆帛書≫의 일부의 經脈과 奇經八脈은 經脈名에서 循行과 病證을 의미하고 있다. ≪陰陽≫의 肩脈은 肩部를 循行하는 經脈이고, 耳脈은 耳部를 循行하고, 齒脈은 齒部를 循行하며 각자 循行하는 부위의 痛症을 經脈의 病으로 가진다. 奇經八脈에 대해서 살펴보더라도 ≪難經≫에서는 奇經八脈의 循行에 대하여 설명한 구절과 奇經八脈의 疾病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足臂≫, ≪陰陽≫의 11經脈과 奇經八脈 모두 循行을 위주로 하는 經脈이며, 循行에서 機能과 病理가 출현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馬王堆帛書≫의 經脈과 奇經八脈 모두 臟腑와의 확실한 연계관계가 없고 미약한 관계만을 보인다. ≪足臂≫에서는 11經脈 중 手太陰脈이 心과 足少陰脈이 肝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陰陽≫에서는 11經脈 중 臂鉅陰脈이 心과 太陰脈이 胃와 少陰脈이 腎과 연관 되어있을 뿐이다. 奇經八脈은 ≪素

問·骨空論≫에서 "督脈者, 起于少腹以下骨中央, … 別繞臀, 至少陰與巨陽中絡者, 合少陰, 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與太陽起于目內眥, 上額交巔上, 入絡腦"라고 하여 督脈이 腎과 腦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을 뿐이고, 기타의 다른 七脈과 臟腑와의 명확한 연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馬王堆帛書≫의 經脈과 奇經八脈 모두 그 循行上 구성 經脈 각각이 독립되어 있으며 經脈간의 표리관계나 연관관계가 희박하다. 대개 十二經脈에서는 각 經脈마다 經別과 絡脈이 존재하여 각 十二經脈간의 表裏連絡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足臂≫와 ≪陰陽≫에서는 이러한 經別이나 絡脈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奇經八脈에서도 ≪靈樞·經脈≫에서 "任脈之別, 名曰尾翳, 下鳩尾, 散於腹. 實則腹皮痛, 虛則癢搔, 取之所別也. 督脈之別, 名曰長强. 挾膂上項, 散頭上, 下當肩胛左右, 別走太陽, 入貫膂"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任脈의 絡脈과 督脈의 絡脈을 제외하고는 기타의 6脈에서는 經別이나 絡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足臂≫, ≪陰陽≫의 經脈과 奇經八脈 모두 循行上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馬王堆帛書≫의 經脈과 奇經八脈 모두 현대의 經脈 循行 형태와 비교할 때 간단하며 거의 分支가 존재하지 않는다. ≪陰陽≫의 11經脈은 모두 分支를 내지 않으며, ≪足臂≫에서도 足太陽脈과 足少陽脈의 두 가지 脈만이 分支를 내고 있을 뿐이다. 四川省에서 발굴된 木人에는 모두 5가지의 經脈에서 分枝가 존재하고, 그 分枝된 양상도 ≪馬王堆帛書≫와 같이 단순한 分枝가 아닌 經脈과 經脈이 이어지는 형태의 分枝이므로 經脈간의 관계가 서로 밀접해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奇經八脈에서는 단지 督脈과 衝脈에서 分枝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經脈간에 이어지는 分枝가 아닌 經脈의 순행부위가 넓어지는 형태의 分枝로 존재한다.

≪足臂≫의 모든 經脈은 向心性 循行을 하여 사지에서 시작해서 흉복부나 머리에서 끝난다. ≪陰陽≫은 十一脈 중 '肩脈'과 '太陰脈'에서 離心性의 循行이 보인다. 奇經八脈은 督脈의 別支가 頭部에서 내려와서 脊椎를 따라서 屬腎하는 離心性 循行을 한다. 衝脈은 主經脈이 인체의 중간 정도에서 起始하여 상부쪽과 하부쪽으로 모두 흐르며, 발목에서 생성되는 別支는 離心 循行을 하여 大趾之間에 이른다. 하지만 督脈과 衝脈의 주된 방향성은 상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 帶脈은 季脇之下에서 起始하여 인체를 橫으로 둘러싸는 듯한 循行을 하고 있다. 기타의 奇經八脈은 모두 向心性의 循行을 하고 있다. 따라서 奇經八脈에서는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奇經八脈 전체의 方向性은 向心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奇經八脈과 早期經脈은 그 형태상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奇經八脈에는 아직 早期經脈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고대인들의 經脈에 관한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고, ≪黃帝內經≫, ≪馬王堆帛書≫, 四川省에서 발견된 木人 등의 漢代 이상의 자료를 중심으로 早期經脈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현대의 經脈 理論 중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奇經八脈과 비교 검토해 보아 早期經脈과 奇經八脈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1. 早期經脈과 奇經八脈에는 명확한 臟腑와의 絡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早期經脈과 奇經八脈 모두 그 循行上 構成經脈 각각이 독립되어 있으며 經脈間의 표리관계나 연관관계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3. 早期經脈과 奇經八脈 모두는 현대의 十二經脈에 존재하는 分支와 비교할 때 經脈의 循行 중 거의 分支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현재의 十二經脈의 형태는 半向心性을 띠고 있으나 早期經脈과 奇經八脈은 대부분 向心性 循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奇經八脈과 早期經脈에는 經脈의 循行으로 命名하고, 經脈이 循行하는 부위에서 疾病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奇經八脈과 早期經脈 사이에는 다수의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奇經八脈은 ≪黃帝內經≫으로부터 그 理論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체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早期經脈의 특징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것

이다.

早期經脈은 經絡學說의 성립과 발전, 經絡의 특성 연구에 중요한 재료가 되므로 아직 早期經脈의 특성이 많이 남아있는 奇經八脈 또한 經絡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周一謨著, 金南一, 印昌植 共譯. 古代中國醫學의 再發見. 1版. 서울 : 法人文化社. 2000 : 13-79.
2. 馬繼興. 双包山漢墓出土的鍼灸經脈木漆人形. 文物. 1996 : 4期 : 65.
3. 李東鎬. 奇經八脈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 서울 :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7 : 12-14.
4. 肖永儉. 奇經八脈流注方向探源. 鍼灸學報. 1992 2期 : 15.